

7월 31일(월) / 대하10-13장

▶**내용요약:** 역대하 10장에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처신으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반역하여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된다. 11장은 르호보암이 성읍들을 견고히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넘어오면서 국가가 강성해진다. 12장은 애굽이 유다를 공격하여 곤경에 처하지만 르호보암이 겸비함을 보여 파멸에 이르지 않는다. 13장은 유다의 2번째 왕인 아비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으로 그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질문:**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가족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자신은 무슨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했는가?(10장)

▶**생각하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답변으로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애굽의 침략도 이어진다. 위기를 맞이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12:12)고 한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인가?**

8월 3일(목) / 대하24-28장

▶**내용요약:** 24장에서는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다. 25장은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해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른다. 26장은 웃시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교만하여 나병환자가 된다. 27장은 요담의 선한 통치로 유다가 강성해진다. 28장은 아하스가 우상숭배를 함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진다.

▶**질문:** 웃시야가 여호와께 억지로 분향하려다가 발병한 나병은 신체 어느 부위에 생겼는가?(26장)

▶**생각하기:** 28장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아람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하자 그들이 섬기는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면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28:23)고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결과적으로 아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더욱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않은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8월 6일(주일) / 스1-5장

▶**내용요약:**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운동을 하는 모습을 다룬다. 1장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1차 귀환을 기록한다. 이와 함께 이전에 탈취해갔던 성전 기구들도 되돌려준다. 2장은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지도자들을 가계별로 나열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된다. 3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제

8월 1일(화) / 대하14-18장

▶**내용요약:** 14장은 아사가 경건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세라의 공격을 막아낸다. 15장에서는 아사가 여호와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영적 개혁을 일으킨다. 16장은 아사의 말년에 대한 기록으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 벤하닷과 동맹을 맺는다.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여호와와의 길을 걸음으로 나라가 다시 강성해진다. 18장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나 패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참된 선지자 미가야를 만날 수 있다.

▶**질문:**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18장)

▶**생각하기:**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백명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18:13)고 하며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언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군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가?**

8월 4일(금) / 대하29-32장

▶**내용요약:** 29장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율법에 따라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30장은 히스기야의 지도로 유월절을 백성이 성대하게 지킨다. 31장은 히스기야가 개혁운동으로 우상을 파괴하고 예물과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32장은 앗수르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 이 듣고 응답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고 ( )하신지라”(30장)

▶**생각하기:**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편지를 보내어 권면하고 유월절을 준비해서 함께 지키도록 한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30:20).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상숭배로 죄 가운데 헤매던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했던 것이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함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료를 준비한다. 이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 4장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나 아닥사스다왕에게 고소장을 보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한다. 5장은 시간이 지나 성전 건축이 재개된다. 이어 총독들이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여준다.

▶**질문:** 유다 총독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돌려주라고 한 그릇들을 가지고 귀환한 사람은 누구인가?(1장)

8월 2일(수) / 대하19-23장

▶**내용요약:** 19장에서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회개와 함께 개혁운동을 시작한다. 20장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지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구원을 얻는다. 21장은 여호람의 통치를 기록하는데 그의 악한 모습을 보여준다. 22장은 아하시야가 왕이 되나 예후의 손에 죽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폭정이 이어진다. 23장은 아달랴의 눈을 피해 숨어 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 개혁을 단행한다.

▶**질문:**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그녀의 눈을 피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몇 년간 숨어 있어야 했는가?(22장)

▶**생각하기:** 유다의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야와 교체하면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20:35).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배들을 파선시킴으로 경고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구와 교체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만나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선한 사람과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기를!!!**

8월 5일(토) / 대하33-36장

▶**내용요약:** 33장에서 므낫세는 우상숭배를 하지만 환란을 겪으면서 회개한다. 이어 아몬의 짧은 통치가 기록된다. 34장은 요시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다. 율법을 읽으며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35장에서는 요시야의 지도로 백성들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킨다. 36장은 유다 말기 여러 왕들의 행적,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보여준다.

▶**질문:** 요시야 시대에 여호와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은 누구인가?(34장)

▶**생각하기:** 36장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의 귀환을 명령한다. 오래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멸망은 하지만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36:22)라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으며 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자!**

▶**생각하기:** 바사왕 고레스가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1:2-3)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King of Kings)**이심을 알게 된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불가능의 영역은 없다.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시는 일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